

연중 제15주일

제 1 독서 : 신명 30, 10-14

제 2 독서 : 골로 1, 15-20

복 음 : 루가 10, 25-37

# 숲 정 이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히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루가 10, 27).

## 강 론

### “길을 가다가”

최용준 신부 / 원평 천주교회

분명 예리고 길은 아니었다. 상황도 그때와는 달랐다. 그런데도 뭔가 오늘 복음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생겼다. 여름 성경학교와 유치원 캠프 물놀이터를 물색하기 위하여 살펴보았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별 수 없이 널리 알려진 고산천을 따라서 그 위치를 정하려던 참이었다. 찌는 더위에 물놀이도 좋지만 고생이라 생각하면서 기사노릇을 충실히 하였다. 뚝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갔을 때 커브를 틀어 나올 만한 곳이 없었다. 옆에 뚫던 수류 사무장이 앞에 있는 좁은 공간을 확인하고는 거기서 차를 돌리던 되겠다고 하였다. 문제는 거기에서 생겼다. 단단한 땅이면 아무 일이 없었을텐데 막상 들어가 보니 자갈 수렁이었다.

낭패였다. 아무리 실랑이를 해봐도 헛수고였다. 바위가 헛도니 타이어 타는 밤새만 진동을 했다. 결국 포기를 하고 구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무장이 논뚝길을 건너 멀리 보이는 경운기를 향해 갔다. 누가 와줄 것인가?

그런데 소식이 없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경운기는 교섭이 안되는지 움직일 생각을 않는다. 함흥차사라드니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다. 참으로 난감하였다. 저녁 미사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차를 놓고 그냥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망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신부님은 미사드려야 하니 저 사람들 보고 끌고 오라 하고 우리 먼저 가자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내심 고민하고 있는 강론 준비내용이 착한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 그가 꼭 레위인 같았다. 동시에 ‘만일 내가 가버린다면 나는 분명히 제관임에 틀림없다’ 하는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갈등 속에 결국 미사를 못 드리더라도 같이 남기로 결정하였다.

차를 끌어내어 집으로 향하게 될 때에는 이미 세 시간 이상을 허비한 후였다. 요사이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 트럭을 가져오고 그것도 안되니까 트랙터까지 불러와 차를 끄집어낸 그 고마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이 말한 착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시골농부의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집을 향하여 시원스럽게 길을 달리는데 엔진소리도 고맙게 들렸다. 옆에서 누군가 “신부님, 오늘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네요” 하고 말을 해온다. “그래?” 하면서 나는 속으로 ‘예수님, 오늘 강론 쓸 자료를 체험케 해주셔서 정말 고맙네요’ 하고 혼자 속삭였다.

## 소 리

### “7월의 공휴일”

사람은 기다리는 맛으로 산다는데, 봉급장이가 가장 기다리는 날은 월급날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제 수고의 대가를 찾아가는 것인데도 돈이 수중에 들어온다는 것은 기쁜 일인 모양이다. 그래서 직장의 일이 고되기는 해도 봉급날을 기다리는 재미로 한달을 보낸다고 한다. 거기에다가 그냥 쉴 수 있는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몇 날 끼어 있다면 이는 분명 금상첨화일 것이다.

7월에는 일요일 말고 덩으로 쉴 수 있는 공휴일이 하루 있다. 그날이 바로 제헌절이다. 그날은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을 경축하는 날이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 새나라의 기틀을 갖추기 위해서 헌법을 만든 날이다. 그러니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그날을 경축하자고 하루를 쉰다. 그런데도 요즘은 제헌절 하루를 쉬는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린다. 왜 그럴까?

헌법을 만들어 정부를 수립한 지 34년, 그동안 우리는 아홉번씩이나 헌법을 뜯어고치고, 지금은 여섯번째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다. 일제의 망령 때문에 마음아팠던 40년대와 50년대, 한때 반짝하고 민주주의의 꽃망울이 터질 듯하던 1960년, 일제의 허물을 다 벗지 않은 군사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온 60년대 이래, 그래도 우리는 끈질기게 문민정치를 기대하며 살아왔다.

올해에는 진정한 문민정치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헌법과 법률들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공공연히 들고나서는 꼬락서니를 보아서는 또다시 힘겨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아직도 무법시대인가? 그래서 7월에 하루 쉬는 공휴일이 편안하지가 않다. ㉠

### 숲 정 이 산책



성서교실 ㉓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창세 3, 1-13)

창세기 3장 1절-13절에서 저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죄의 어두운 신비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 소위 ‘원죄’라고 하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인간의 배은망덕한 반응을 심리적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다.

하느님께서 첫 남녀에게 요구하신 규율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선과 악’은 윤리적 규범을 말하기보다 인간에게 도움과 구원을 가져오거나 손해와 파멸을 가져다주는 어떤 행위의 구체적인 결과를 가리킨다. 따라서 ‘선과 악을 안다’는 표현은 자신의 구원과 파멸을 스스로 마련한다는 뜻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기 위해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말은 그들이 자신의 구원과 멸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뜻이다. 이런 행위는 자신들을 만드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하느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는 오만불손한 행위인 것이다.

성서저자는 인류의 타락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으로 뱀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뱀은 교활하고 간교하며 해마다 허물을 벗어 자신을 쇠신하는 것처럼 보여 고대로부터 생명의 표시요, 치유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고, 다산성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뱀이 여자에게 묻는 말은 아주 교활하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이 질문에는 거짓과 진실이 함께 들어 있다.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다. 그런데 여자는 호기심어린 반응을 나타내 보이며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며 ‘만지지도 말라’는 과장을 덧붙인다. 여기서 여자는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규율을 마음대로 수정하며 하느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욕망을 드러낸 셈이다. 이를 농칠세라 뱀은 즉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며 유혹한다.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과 교만으로 유혹의 덫에 걸린 여자는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다. 이렇게 죄악은 시작되었고, 열매를 먹은 두 남녀는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치부를 가리고 하느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는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왜 따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서로의 책임을 전가시킨다. 이처럼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서로를 고발하며 피조물과도 갈라지게 한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의 이 질문은 하느님의 원초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 아담 이래 모든 인류에게 던져지고 있다. “사람아, 너는 나의 원초적인 창조 계획 안에서 너의 위치를 똑바로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너와 나 사이의 관계, 너와 동료 인간들 사이의 관계, 너와 이 세상 사이의 관계가 창조의 질서 안에서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느님은 세기를 두고 모든 인류에게 즐기치게 물어오시는 것이다.

**조주온 치과 의원**  
 이전 확장 개원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원장 조 주 온(헬레나)  
 중앙 성당 맞은편(허기석내과 건물)  
 ☎ 87-8291

**고급 적벽돌 생산업체**  
 (환원벽돌, 변색벽돌, 미다시)  
 제1공장: 성심연와  
 (0658)546-4174  
 제2공장: 대진요업  
 (0658)546-7080  
 본 사: (0653)51-0488  
 대표 차 계 철(베드로)

**한 라 스포츠**  
 등산, 낚시, 스포츠용품  
 자갈 텐트 셋트 염가 판매  
 (현금, 신용카드 분할 판매)  
 송혜리(살로메)  
 관동로 전주 전신전화국 앞  
 ☎ 84-2941

**자갈 텐트 셋트 분할판매**  
 각종 등산 장비 일절  
 정시택(아오스딩), 김미향(세실리아)  
 군산 시청 옆(군산시 영화동 20-3)  
 ☎ (0654) 445-6090  
 445-6091

잡 간

“치명자산 성역화 사업을 재개하면서”

해발 300m의 '승암산', 1912년 당시 전동 본당신부였던 보두네 신부에 의해 유항검과 그의 가족들이 문헌 이후 '치명자산'으로 더 잘 알려진 곳. 이곳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80여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재산과 혈통을 족보째 바친 이 고장의 첫사도 유항검과 불 같은 청춘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신·망·애 삼덕의 길을 항구하게 걸은 동정부부 유요한, 이루갈다의 고귀하고 거룩한 삶을 본받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짙통 같은 요즈음에도 매일 100여명의 교우들이 이곳 '치명자산'을 순례하는 걸 보면 주님은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믿음을 강하게 한다. 그러기에 순교자가 많고 성지가 많은 것은 우리 교구의 자랑이 아닐 수 없고, 이러한 성지를 잘 보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구는 '87년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교구민의 뜻을 모아 '치명자산'을 성역화하기로 결정, '88년 3월 5일에 기공식을 가졌었고, '89년 9월 말경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형적인 조건과 설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골격만을 세운 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교회 안팎으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오히려도 있었다. 교구는 이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그동안 여러 차례의 현장 답사와 안전도 검사를 마치고 지난 6월 17일 다시 삽을 들었다. 완공시기는 '93년 부활 전후이고, '93년 5월에 축성식을 가질 예정이며, 총공사비는 10억원인데 앞으로 소요될 예상액은 8억원이다. 건물구조는 성당, 기도실, 사무실, 화장실, 추념 광장으로 되어 있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다른 건물을 세우지 않지만 아늑하고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모두 순교자의 삶을 지키고 살아온 선조들을 본받아 이곳 '치명자산'을 널리 알리고 성역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겠다. 우리 모두의 숙원인 '치명자산' 성역화 사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교 구 소 식

※ 성서교실 특강 및 피정: 7월13(월) 오전10시-오후5시 중앙 성당, 주체-계시론, 강사-이병호 주교, 준비물-미사도구·중식·노트, 문의-사목국(85-0041), 성서교실 수강자 외 신자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1. 문규현 신부와 구속방북인사를 위한 기도회: 7월13일(월) 오후8시 가톨릭센터.
2. 영원한 인식을 주소서: 지난 7월3일에 선종하신 김기수 신부의 모친 김순옥(리오바)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7월6일 장례미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제9차 선택 주말: 7월17일-19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문의-교육국(85-0041).
4. 전주교구 가톨릭 사진가회 회원 모집: 문의-홍보국(85-0041), 촬영회-매월 셋째주일.
5. 교도소 사목후원회 아모미사: 7월13일(월) 오전10시 가톨릭센터 집결, 장소-동상 수만리.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7월20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사랑의 기적  
 ※ 축! 영명: 13일(성현리교) 김영수 신부님, 15일(성보나베포라) 이수현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음식을 찌꺼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을 찌꺼기를 모으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가능한 절제있는 식단을 차리고 찌꺼기는 반드시 따로 싸서 버립니다.

요심이 (988) 김병오



교 사 초 비

과목 및 인원: 지구과학 1명  
 제출서류: 이력서, 호적등본, 고등학교생활기록부사본, 대학전학년성적증명서 각1통  
 접수마감: 92. 7. 18. 12시까지  
 면접: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접수처: 전주해성중고서무과 ☎ 251-9735

마리아의 전교사 프란치스코수녀회

성소자 여름 대표제(3박4일)  
 • 대상: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 곳: 경남 산청 나한우마을 교육관  
 • 때: 7.31(금)후5시-8.3(월)12시  
 • 인원: 선착순 65명  
 • 준비: 미사도구,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영광 수녀원(0686) 2-2075

우 전 독서실

남자 전용  
 성심껏 보살피겠습니다.  
 정 봉 구(베드로)  
 김 옥 남(모니카)  
 우전국교 정문 앞 ☎ 221-0747

주 단·침구·혼수 전문 부 인 주 단

김 한 중(요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양재·한복·호퍼션  
**노 라 노 학 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견안드레아)  
 동부시정찬·민정당시열  
 ☎ 86-2715  
 \* 냉난방 완비

대학 입시 전문  
**고 도 미 술 학 원**  
 디자인계, 구성, 팻상, 동양화  
 김 석 준(안드레아)  
 제일학원 옆 대림빌딩 5층  
 ☎ 86-6575

젊음과 지성의 멋  
 캐주얼 **행 텐**  
 Hang Ten  
 채 석 자(글라라)  
 전주백화점 옆  
 ☎ 87-6575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1. 사목회 임시총회: 공식미사 후.
2. 중·고 하계캠프: 7.23~25일, 영광모래미 캠프장. 3.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6~29일. 참가비: 3,000원. 불꽃이: 30~31일. 참가비: 4,000원. (19일 청소년 교육행사를 위한 2차헌금있음).
4. 예비지교리: 수요일-오후8시. 일요일-오전11시. 5. 반회장 쟁질: 중노21반 박순애(마리안나)→강향이(글라리아) 6. 정우회 소풍: 7월17일 지리산 노고단. 7. 모임: ①푸리아(12일 후2시) ②부녀회(14일 어머니미사 후) ③제숙형제회(18일 후2시) 8. 감사: 남노 권기성(선봉기대 기증) 9. 교부금 미납의 신분은 정성껏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금주청소: 인후7.8반. 차주청소: 인후9,10반.

□ 지난주 봉헌금: 902,340원 □ 교무금: 999,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첫 영성체: 오늘 공식미사.
  2.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20일(월)~25일(토) 오전9시.
  3. 중·고생 하계 수련회: 23일(목)~25일(토) 전안군 용담면.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4. 회합: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②푸리아(오후2시) ③청년회(저녁미사 후) ④부녀회(16일 오전10시) ⑤성우회(19일 공식미사 후)
- 금주전례: 최옥남, 독서-정승관씨 부부  
봉헌-허희영씨 가족  
차주전례: 오교성, 독서-하병규씨 부부  
봉헌-송영진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73,730원 □ 교무금: 835,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욱

- ※ 오늘은 연중 제14주입니다.
1. 장년회: 18일(토)저녁미사 후. 2. 성모회 총회: 19일 공식미사 후. 3.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중·고하계 수련회: 23일~26일까지. 5. 영제회 일정: 14일(화)백암, 15일(화)공기, 16일(수)서당, 17일(목)수월, 마지. 6. 성서읽기: I 사부1장~12장. 7. 수녀원 신축헌금: 신입액-850만원. 8. 청소년사: 모든성인의모후Pr. 9. 여름성경학교(초등부): 27일~8월1일까지. 10. 금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한동욱 ②송경자. 봉헌-태대환, 이명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양태환 ②이석남. 봉헌-김문옥, 황옥심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03,300원 □ 교무금: 276,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 오늘은 연중 제15주일!
1. 회의: ①프란치스코3회-오늘 오후2시 ②성심회-7월13일(월) 성심회 총회를 책장다리 밑에서 개최코저 하오니 전회원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오전9시40분까지 모여주시어 10시정각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세요. 2. 알림: ①사목회여성, 구약부·차장임명: 여성부장-조귀래(무시아), 차장-김옥자(크리스티나)자매님. 구약부장-김순자(무시아), 차장-이윤애(올리아)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고해주십시오. ②초등부 여름신앙학교-7월17일(금)~7월21일(화).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바라며, 자모회원님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③중고학생 관계수련(캠프)-7월23일(목)~7월26일(일). 학생들의 많은 참석바라며 부모님들의 협조와 사목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740,700원 □ 교무금: 57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초막공동체 준비에 많은 참여와 협조바랍니다.
2. 미사시간 변경: 7월 15일 수요일: 새벽미사 7월 15일 목요일: 저녁미사 7월 17일 금요일: 저녁미사
3. 여름신앙학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7.21~7.25(미리 신청바랍니다) 회비: 2,500원
4. 청소년사: 5구역 1반, 2반.

□ 지난주 봉헌금: 665,600원 □ 교무금: 1,172,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1. 금주: ①자모회(전10시) ②일치의 모후 푸리아(후2시) ③사목회(후8시)
2. 민안나수녀님 세미나: 13일~17일 기도바랍니다.
3. 성모회: 15일(수) 오전11시. 4. 구역반장회의: 16일(목)오전 11시.
5. 교구 울뜨레아: 17일(금)오전10시. 해상학교 율호관.
6. 중·고등부 하계캠프: 23일~25일. 장소: 부주 안성면 수막마을 신청: 19일까지. 부모님들의 협조부탁드립니다.
7. 여성 꾸르실료 교육 참가 희망자 사무실에 접수.
8. 감사드립니다: 본당에어른 설치 헌금 180만원. 안숙자(글라리아) 9. 차주: 바비의 성모 푸리아(후2시)

□ 지난주 봉헌금: 1,751,740원 □ 교무금: 2,494,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1. 여름 신앙학교 원서 교부: 19일까지 초등부-3,000원. 중·고생-7,000원(산간학교 포함).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2. 초·중·고 교사 9일기도: 18일까지. 많은 기도 바랍니다.
3. 청소년 여름 신앙학교 후원,은인을 구합니다: 19일 까지.
4. 사목회 임시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안건-여름 신앙학교.
5. 본당 울뜨레아: 야외행사-17일 전8시30분. 지리산 반신계곡.
6. 교도소 사목 후원회 야외미사: 13일 전10시, 샌타 집질.
7. 회의: 성모회-15일 어머니미사 후. 청년회-19일 후8시. 광진6동401호 송송구 대, 16일 11시30분.
8. 가정미사: 전창수 대, 14일 후8시, 주공 202동 606호.

9. 이래자 환영 인사 나누기: 다음주 공식미사에 모두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일인일 단체 가입을 권고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908,250원 □ 교무금: 806,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영세식: 오늘미사 중에 있습니다(축하드립니다)
2. 성모회: 오늘미사 후.
3. 반모임: 14일(화)오전-화산2(B). 오후-평화. 저녁-삼정. 15일(수)오전-금화. 오후-화산2(A). 미사빌.
4. 지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5. 여름신앙학교: 20일(월)~25일(토)까지 오전9시~12시30분.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중고여름신앙학교: 23일(목)~25일(토) 오후5시~6시30분. (산간학교: 27일(월)~29일(수)까지 2박3일)
7.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송선심·이승원 차주전례: 이완자 독서·봉헌: 강송자·배태성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보좌신부 서 석 회

- ※ 오늘 연중제15주일(신앙학교를 위한 2차헌금)사목회장이 동 섭-모임안내-
1. 울뜨레아-오늘 10:30. 2. 성구회-오늘후2시(교육대학)
  3. 초등부 신앙학교-20일(월)~23일(목)
  4. 중고등부 신앙학교-21일(화)~22일(수)
  5. 중고산간학교-23일(목)~25일(토) 장수막산분교.
  6. 꼬미시울-25일(토) 오후3시 7. 성모회-15일(수) 11:00
  8. 자모회-15(수) 10:30

※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를 위한 특별 후원자를 구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사무실에 접수).

-미사안내- 금주-자비의 모후,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차주-사도들의 모후, 사랑하심 모친.  
□ 지난주 봉헌금: 1,358,130원 □ 교무금: 1,634,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안내: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13(월)오전9시.
2. 초등부 복사단, 전례단 단합대회: 17(금) 오전9시.
3. 중고생하계캠프: ①일시-7월22(수)~25(토) ②주제-성서 나라의 여행 ③참가비-7,000원 ④예비모임-17(금) 오후4시~6시.
4. 여름성경학교: 20(월)~24(금) 차주모임-새벽회, 신축헌금봉헌액-330,000원 금주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최자성, ②윤규임 미사봉헌안내-김상식 부부, 김광식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광년, 독서-①권병제, ②김성보 미사봉헌안내-최규화 부부, 강진호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339,780원 □ 교무금: 2,011,000원